

01. ⑤	02. ③	03. ①	04. ②	05. ④	06. ②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⑤	17. ①	18. ②	19. ①	20. ④
21. ③	22. ④	23. ③	24. ③	25. ②	26. ④	27. ①	28. ①	29. ④	30. ⑤
31. ⑤	32. ④	33. ⑤	34. ④	35. ⑤	36. ⑤	37. ③	38. ②	39. ④	40. ③
41. ③	42. ③	43. ②	44. ④	45. ③	46. ①	47. ③	48. ②	49. ①	50. ②

## [1-5] 듣기

##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논밭이 워낙 적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을 관아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원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식을 그냥 줄 수 없네. 저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품삯으로 주겠네.”

일이 시작되었지만,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품삯으로 받는 양식도 그리 많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하나, 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은 양식을 그냥 나눠 주자고도 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내게도 생각이 있단네.” 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황무지는 밭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간 품삯을 좀 박하게 주었지? 남은 품삯은 지금 주겠네. 바로 저 밭 일세. 저 밭은 이제 자네들 것이네.” 하며 그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굶주리는 사람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양식을 생산할 농토가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도움(양식)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⑤가 이 이야기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 원님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시켜 밭이 일구어지자 이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행동은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준 것이다. 원님이 밭을 일구기 전까지의 정책, 즉 양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일을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③ 원님이 아무에게나 밭을 나누어주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한 백성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답지이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2.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교사: 그래 은영아. 뭔데?

학생: 자연 현상은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저기 국기 게양대를 한번 볼래? 깃발이 펄럭이지? 저 깃발은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때 바람은 원인이 되고 깃발의 움직임은 결과가 되지. 이렇게 외부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하는 거야.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의 행동도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요?

교사: 사람의 행동은 물리적 인과 관계보다는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아.

학생: 목적론적 관계는 또 뭔데요?

교사: 음, 예를 들어 볼까? 은영이 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던데, 왜지?

학생: 앞으로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교사: 그렇구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 역사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은영이 네가 세운 목적이고, 그 목적은 바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목적론적 관계야. 너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세운 목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겠니? 그럼 이제, 깃발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 현상과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학생: 예, 선생님. 깃발은 바람이라는 외부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의 경우는 ( )

## 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서 교사는 외부의 물리적 원인(바람)에 의해서 어떤 결과(깃발의 펄럭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목적(역사학자가 되고 싶다)이 행동(열심히 공부한다)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목적론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인과 관계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남에 비해, 목적론적 관계에서는 목적에 따라 행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자연 현상과 인간의 행동이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은영)은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물리적 인과 관계를 요약하고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은 목적론적 관계에 대한 요약이어야 한다. 목적론적 관계를 요약할 때에는 ‘선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외부적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인과 관계를 요약하는데 더 어울린다. ② 인간은 물리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④ 목적론적 관계는 목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⑤ 교사는 목적의 자발적 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부터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면 외부와 격리된 우주 기지 내부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식량과 산소 등을 지구에서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항공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스스로 유지되는 환경 모형을 만들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유리공처럼 생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입니다. 이 밀폐된 유리공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그리고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도 있습니다. 이 유리공의 외부에서 빛의 양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바닷말이 자라면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새우는 이 바닷말과 산소로 살아가고, 새우의 배설물은 자갈과 모래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바닷말의 양분이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지구에서 우주 기지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모형이 아니라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한 환경 모형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과학자들이 우주 기지 내에서 자족적 환경 모형을 만들어 연구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만든 상품이 에코스피어이다. ④ 에코스피어는 밀폐된 유리공인데 이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가 들어있다. ⑤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져 그 속의 생태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5]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여기는 김준근 풍속화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한국미술관 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준근은 어떤 화가입니까?

남: 네, 김준근은 개화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궁중 화가는 아니었고요,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됩니다. 이 화가의 특이한 점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작품만 해도 1,200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 아, 예. 국내의 한 대학에 새로 기증된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준근의 그림이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조선의 풍속을 자신들의 나라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가 외국인들의 요구에 맞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귀국할 때, 김준근의 그림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여: 그런 이유라면 사진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열린 비숍 여사의 사진전에서 개화기 조선의 풍속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이면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그림이었을까요?

남: 사진보다는 김준근의 그림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충족해 주었을 겁니다. 방아로 곡식을 찧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포스터를 보세요. 만약 외국인들이 이 방아를 사진으로만 보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 방아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이 사진보다 조선인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여: 예, 정말 그렇겠네요. 사극을 제작할 때, 당시 사회상을 재현하기 위해 풍속화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준근의 그림도 그런가요?

남: 그렇습니다. 사실 김준근의 그림을 처음으로 주목했던 국내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었어요.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 등을 그의 그림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지요.

여: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포스터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4.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국내에서 김준근의 그림에 주목했던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다.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을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관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장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미술관’에서 김준근 풍속화전을 연 이유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준근은 민속학자가 아니며, 김준근의 그림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이 민속학자이다. ③ 김준근은 궁중 화가는 아니고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된다. ④ 김준근은 풍속화가이며 국내보다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 ⑤ 풍속화가 사진보다 더 선명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시대를 고발한 그림이 아니다.

##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김준근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학에 기증한 김준근의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으로 들었다.’, 개화기 조선의 찍은 사진을 보았고, 풍속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사극을 제작할 때 풍속화를 참고한다고 들었다.’ 등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⑤ 여자가 말한 내용이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술관장의 설명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 [6-12] 쓰기, 어휘 · 어법

##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동차의 각 요소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내는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액셀과 브레이크에서는 동아리의 활동의 일처리 속도를 적절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에서는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가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와 액셀’을 외부의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춘다는 기능에서 외부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엔진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 대표가 동아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③ 계획한 경로에 따라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 방향을 조정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④ 지속적인 회전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바퀴의 주된 기능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동아리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⑤ 야간 주행을 위한 시야 확보를 해 주는 전조등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과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시구를 창작하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자신도 모르게 시구를 떠올리게 한 것은 도보 여행에서 발견한 ‘그 모습’이며, ‘그 모습’은 가을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과 바람에 흔들리는 친구처럼 반가운 코스모스의 모습이다. ①은 ‘노란 벼’와 ‘미소 짓는 코스모스’를 언급하여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미소 짓는 코스모스’와 ‘정겨운 그(코스모스)의 마음’으로 볼 때, 의인법이 활용되었으며,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는 ‘정겨운 그의 마음에 나도 몰래 끌렸네’를 도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고 계절감도 드러나며 도치법도 사용(반가움~미소)되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글쓴이가 풍경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의인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붉은 꽃들의 향연’은 벼와 코스모스의 ‘그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명사구로 종결되는 시행들은 도치법의 표현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 바람은’은 ‘바람은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를 도치한 시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발상은 의인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구를 떠올리게 한 벼와 코스모스의 풍경과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걷는’은 일기의 앞부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반가운 친구’를 의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떠한) 길에서 (무엇을) 보았네’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시행에서는 도치법이 쓰이지 않았다.

## 8.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맥락에 따라 숫자가 되기도 하고 한글이 되기도 하고, 알파벳이나 도형이 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는’이 아니라 “○”는’이다. 필요한 문장 성분 즉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갖추고 있는 문장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 성분 ‘우리가’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한 ㉡의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되어-’와 ‘-지’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쓰였으므로, ‘이해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맥락의 발견을 통해서 글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글에서 ‘예상 독자의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확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대상’이 정확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정확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이해’로 ‘정확한’의 성분을 옮겨서 수식 관계와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맥락을 통한 읽기가 즐거우므로 맥락 읽기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는 의미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접속 표현을 ‘그러나’에서 ‘그래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9. 비판적 사고 (내용 생성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㉔의 내용은 인터넷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다는 내용과 인터넷 홍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가)-2는 33.3%가 인터넷에서 여행 정보를 얻는다는 내용이고, (다)는 극단 자체의 해외 홍보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가)-2와 (다)를 ㉔과 연결한 ⑤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은 ‘공연 상품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의 공연 관람 실태’를 고려한 내용인데, (가)-1은 외국인 방문 기간의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이고, (다)는 극단 자체의 한계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② ㉔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2는 여행 정보를 얻은 곳에 관한 자료이고 (나)는 성공적인 공연 사례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은 ‘대사가 많은 공연’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 (다)의 자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요소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④ ㉔은 제작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1은 외국인의 방문 활동, (가)-2는 외국인 정보 획득 경로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 10.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상품화 과정에서의 세금 감면’은 세금을 매기는 주체인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내용의 논리적 전개를 고려하여 항목을 옮겨야 한다면, ‘공연 관계자 차원’의 개선 방안이 아닌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의 아래에 옮겨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용 상설 공연장의 확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㉔을 참고한다면, ‘전용 상설 공연장 부족’이라는 항목을 ‘문제점 분석’의 아래에 둘 수 있다. ② ‘공연의 볼거리 부족’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단조로운 공연 내용’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연의 ‘상품화’라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연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⑤ 정부의 인터넷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㉔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홍보에 관한 여론 조사 실시’라는 내용보다는 ‘인터넷 홍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11. 어휘·어법 (완곡어법의 표현)

**정답해설 :**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하는데, <보기>에서는 문장의 형태뿐 아니라 어휘 사용을 통해서도 완곡어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①의 경우 ‘이 편지 부쳐 주세요’라는 기존의 표현에 ‘좀’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이 편지 좀 부쳐 주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늘’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강화된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③ ‘영’은 ‘없다’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④ ‘죽’은 ‘들이켜라’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완곡어법을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⑤ ‘더’는 비교 표현으로 쓰였고, 완곡어법의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 12. 어휘·어법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㉔의 ‘읽다’와 ‘읽히다’는 둘 다 동사이다. ‘읽다’가 ‘누가 무엇을 읽다’의 능동문에 쓰이고, ‘읽히다’가 ‘무엇이 누구에게 읽히다’의 피동문에 쓰임으로써 문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품사가 달라 지지는 않으므로 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㉔과 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㉔에는 ‘읽다’와 ‘읽히다’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멋’과 ‘멋’에서 파생된 ‘멋쟁이’는 둘 다 명사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㉒ ‘파랗다’와 ‘파랗다’에서 파생된 ‘새파랗다’는 둘 다 형용사이므로 ㉑에 해당한다. ㉓ 동사 ‘지우다’에서 파생된 ‘지우개’는 명사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㉕ ‘열다’가 쓰이는 문장(‘누가 무엇을 열다’)과 ‘열리다’가 쓰이는 문장(무엇이 누구에 의해 열리다)은 그 구조가 다르므로 ㉔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 [13-16] 현대 소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59년 발표된 소설로, 전쟁이 한 마을 공동체와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근찬의 다른 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전쟁을 다루되 전쟁의 실상이나 전개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공동체와 개인이 겪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고 주인공 배(裴)삼바우는 나룻배로 손님들을 태워 나르는 사람이다. 전쟁의 광풍은 이렇게 외진 곳의 청년들까지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배삼바우의 아들 용팔이, 양생원의 외동아들 천달이, 모랑댁의 아들 두칠이가 그들이다. 모랑댁의 아들 두칠이가 가장 먼저 흉측한 얼굴로 부상을 입고 돌아오고, 외동아들 천달이는 전사 통지와 함께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다. 남은 것은 삼바우의 아들 용팔이인데,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삼바우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나룻배의 사공으로서 배삼바우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저항은 ‘양복 입은’ 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나룻배에 태워 나르기를 거부하는 일뿐이다. 나룻배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든 것이었지, 자식들 데려가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전쟁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었던 배삼바우의 유일한 몸부림이다. 제시된 지문은 동네에 양생원의 외동아들 두칠이가 전사해서 유골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주제]** 전쟁의 부당한 폭력성에 대한 고발

## 1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이 작품은 뱃사공 배삼바우와 우체부의 대화, 대열이와 그 가족의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동네 청년의 죽음을 대하는 두칠이의 독백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㉑**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② ‘마을’에서 일어난 일과 인물들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으나, 사건의 객관적 전개와 별도로 일어나는 서술자나 작중 인물의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과 교차되어 서술되지는 않고 있다. ④ 배삼바우의 심리를 알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 언급하는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고 있고,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지도 않다. ⑤ 작중 인물 가운데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없다.

## 14.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낮의 마을은 ‘난데없는 곡성’에 발각 뒤집혔고,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자식을 잃은 양 생원 댁의 슬픔은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밤’을 불길한 일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집배원의 ‘빨간 자전거’는 ‘천달’의 전사 소식을 전해 주고 있으므로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의 좌절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읍내’는 ‘천달’의 유골을 담은 ‘상자’를 갖고 오는 곳이므로,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무섭게 저물어 가는 ‘별진’ 황혼은 천달의 유골 상자를 안고 돌아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5. 비판적 사고(독자 반응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대열이’는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읍내에 가는 이유를 묻는 대화이다. 가족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인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어른들에게 사정을 묻고,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그런 사정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대화는 작중 상황이 갖는 비극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로 비판의 대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② 어른들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에게 전쟁의 잔혹함을 알려줄 수 없어서이지 권위적인 성격 때문인 것은 아니다. ③ 어른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으므로, 어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아이의 모습을 작중의 슬픔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며,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 16.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언급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은, ‘두철이’를 가리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킨다. ‘두칠’이는 흥측한 얼굴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알곳은 웃음’을 짓고, ‘얼굴을 실룩’거린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 ⑤는 적절한 감상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군수의 편지’는 ‘천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이고, ‘유골 상자’는 천달의 죽음을 구체화한 사물이므로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다. ② 하나만 남은 두칠의 눈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사실은 전쟁의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할 수 있다. ③ ‘보통이지’라는 말은 전쟁에서 그런 죽음이 보통이라는 말이므로, 천달의 유골을 보면서 두칠에게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나루터가 들끓’었다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천달’의 죽음에 슬퍼하는 행위를 보여 주었다는 뜻이므로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 감상은 적절하다.

### [17-20] 인문, ‘진리 판단에 대한 여러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진리나 참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응설은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할 때 그 주장이 진리라고 말한다. 정합설에서는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실용설에서는 결과의 유용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이론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이론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동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에서 바라보는 진리 판단 기준

### 17.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방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이 글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세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 등의 세 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대응설의 경우 네모난 책상에 대한 판단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합설은 뉴턴의 역학에 기준을 둔 판단을, 실용설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의 창의력 향상이라는 판단을 사례로 들어 진리 판단에 대한 각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존의 여러 이론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세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③ 구체적 현상이 지닌 원인을 분석하는 글이 아니라,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④ 여러 이론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핵심 개념을 설명할 뿐 변증법적 절충은 아니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18. 논리적 사고(숨겨진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대응설에서는 사실과 판단의 일치 여부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 이때 대응설은 어떤 판단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의 다음 문장이 이를 보충해주는 문장으로, 인간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바탕으로 다른 판단과의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 전제 문장은 인간의 사실 판단 능력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은 감각을 통해 외적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식이나 판단이 항상 참이면 진리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이론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된다. ③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기에,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과는 무관한 진술이다. ④ 인간들 각자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로, 이에 따르면 인간 각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역시 ㉠과는 무관한 진술이다. ⑤ 감각적 지각 능력을 통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어떤 판단 내용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대응설이다. 진리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이지, 대상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 1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라는 판단에 대한 스테노의 의견이다.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 화석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러한 판단 내용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기에, 대응설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는 당시 지질학자들의 판단을 묻고 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새로운 판단)에 대해 지질학자들은 통설(기존의 이론 체계)을 근거로 틀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정합설의 관점이다. **정답 ①**

## 20. 비판적 사고(정보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실용설은 어떤 판단의 진위를 반별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을 통한 결과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그런데 ㉣의 답지는 실용설을 비판하면서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의 실체 확인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다. 감각으로 확인 불가능한 존재의 진리 판단 여부에 대한 것은 감각과 관찰, 사실과의 일치를 중시한 대응설과 관련된 진술이다. 즉, ㉣는 대응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실용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대응설은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학이나 논리학에서의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명제의 참/거짓 판별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② 정합설은 기존의 이론 체계가 서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적절한 문제 제기이다. ③ 기존의 지식 체계를 중시한 정합설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지식 체계의 진리 여부 판단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⑤ 실제 행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동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실용설의 경우, 유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고 주관적일 수 있기에 진리 자체도 상대적이 될 문제가 존재한다.

## [21-23] 과학, ‘데카르트 좌표계의 수학적 의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카르트가 제안한 좌표가 수학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용하면 직선, 원, 타원 등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제]** 데카르트 좌표계가 수학에 미친 영향

## 2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고대 그리스 이래로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까다로웠지만,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좌표 개념은 데카르트가 생각해 낸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좌표 개념을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술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는 원의 방정식  $x^2 + y^2 = 5^2$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는 기하학적 형태의 일종이고, ‘좌표’는 수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22. 추론적 사고(주장의 근거 파악)

**정답해설 :** ①은 데카르트가 수학 분야에서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는 주장이므로, 근거는 수학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기존의 기하학은 증명을 통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형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수학 분야에 업적을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남긴 것은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고대 그리스 이래로 사용해 왔던 방법이다.

## 23. 창의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사무실의 호수를 사무실의 8개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를 세 자리의 수로 만들어 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무실의 호수가 단순히 원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축의 좌표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의 호수가 정해진다고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데카르트 좌표계는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인데, 이를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두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또 하나의 축을 세우면 된다. 즉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에 좌표를 만든 것과 같다. ② 사무실 호수를 정할 때 백의 자릿수를 사무실 층으로 설정한다고 하였다. ④ 사무실의 호수는 세 자리인데, 백의 자릿수는 해당 층으로, 십의 자릿수는 북쪽 좌표로, 일의 자릿수는 서쪽 좌표로 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 사무실은 5층에, 북쪽 좌표는 3, 서쪽 좌표는 3이므로 좌표는 (5, 3, 3)이 된다. ⑤ 두 사무실의 벽면이 맞닿아 있다는 것은 세 개의 좌표 중 두 개는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벽면이 맞닿아 있는 두 사무실은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수 중에서 두 개가 같다.

## [24-27] 예술, '영화적 관습의 유동성'

지문해설 : 이 글은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인 '영화적 관습'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 하는데, 이는 영화사 초기에 확립되어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면서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여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고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이렇듯 파괴된 관습이 반복된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로 보아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영화적 관습의 특성

## 24.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영화적 관습 비틀기가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이루어진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으나,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추리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되어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②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한다. ④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힌다. ⑤ 파괴된 영화적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즉 새로운 재현 방식이 시도되고 그것이 수용되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적 관습은 변화하게 된다.

## 2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은 예컨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식으로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③ ㉠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는 것,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④ ㉠과 ㉡ 모두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에 비해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6.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영화에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이 삽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에서 제시된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그 다음에 입구가 닫히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볼 때, 작중 현실에 존재하는 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과 같은 우연적 사건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②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③ 우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⑤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 27.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의’(異議)라는 말은 다른 의견이나 논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의를 달다/이의를 제기하다/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정답 ①

**[28-30] 언어, ‘중간 언어와 언어 습득’**

**지문해설** : 이 글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중간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L2(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처음 습득한 언어)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이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중간 언어가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2 학습자가 생성하기 마련인 오류는 많은 경우 L1의 부정적인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리고 L2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아의 언어는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며,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반면에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주제]** 중간 언어의 존재가 언어 습득에서 시사하는 바

**2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간 언어는 L2의 습득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③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이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④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징할 수 없는 반면,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따라서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⑤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 발달할 수 없다.

**29.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에서 L2 학습 기간과 오류 양상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우리는 L2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②⑤ L2 습득 과정에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 30. 추리적 사고(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L2를 목표로 발달해 가고, ㉡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 ㉡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로, L1과 L2가 혼종된 언어이고, ㉡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혼종된 언어에 해당한다. ② ㉡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가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지는 변화를 보였는데, ㉠ 역시 그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지만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③ ㉡는 초기에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 역시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 ④ ㉡는 이주민들의 언어라는 점에서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말할 수 없다.

## [31-34] 현대시

## (가) 박남수, 「새 1」

**지문해설 :** 이 시는 번호가 부여된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에서는 ‘노래’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의 노래와 ‘사랑’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랑을 언급하며 ‘새’의 순수성을 언급한다. 화자는 이러한 새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에서도 ‘새’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3에서는 이러한 ‘새’를 잡기 위해 ‘포수’는 총을 쏘지만 결국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잡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이 작품은 새의 순수하고 천진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뒤, 그것은 파괴적이고 불순한 인간 문명으로는 얻을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이면에는 순수한 가치에 대한 옹호와 추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시를 인식의 주체(포수, 인간)가 대상(새, 자연)의 본질을 인식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 인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추구 / 본질의 순수성과 그것에 도달하기의 어려움 /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

## (나)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지문해설 :**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어 ‘그릇’을 어머니는 ‘그룩’이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삶에 대한 경건성과 시인으로서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연구분 없이 총 20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의미상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3행에서는 ‘그릇’을 ‘그룩’이라 부르는 어머니를 언급하고, 이어서 4~8행에서는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어머니의 ‘그룩’이라는 말 속에는 편안함(‘편안한 수평’)과 따뜻함(‘체온처럼 따뜻했다’)이 담겨있다고 한다. 9~16행에서 ‘그룩’과 ‘그릇’은 차이가 있는데, ‘그릇’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전에서 찾은 것이지만, ‘그룩’은 어머니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17~20행에서는 어머니처럼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어머니의 언어인 ‘그룩’과 같이 삶이 녹아있고, 따뜻한 사랑이 담긴 언어로 살아있는 시를 쓰고 싶다는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긴 시를 써야 한다는 자기 반성.

### (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행은 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노래(운율)와 이야기(가사)가 결합된 것이 시라는 것이다. 또, 여기서 ‘심장’은 감성(感性)과, ‘뇌수’는 이성(理性)과 관련된 시어이다. 즉 시인은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시를 좋은 시로 생각하고 있다. 2~7행은 처용설화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한다.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지만,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대를 악보(‘노래’)가 사라진 시대로, ‘노래’를 ‘은밀히’ 말 속에 끼워 넣는 현실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12~15행에서는 ‘뇌수’(이성)와 ‘심장’(감성)이 긴밀히 조화를 이루는 시를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 31.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새’와 ‘포수’, ‘한 덩이 낱’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대비시켜 인간의 비정성, 비순순성 : 새의 순수성, 혹은 인식에 대한 노력 : 인식의 실패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그룩’과 나의 ‘그릇’을 대비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도 ‘심장’(감성)과 ‘뇌수’(이성)을 대비시켜 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대비’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나 시행이 없다. ② (가)에는 ‘~ 줄도 모르면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와 (다)에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다) 모두 역설적이라고 볼 만한 표현이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32.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의 ㉔는 의미상 (나)의 ‘그릇’에 대응한다. 즉, (나)의 ‘그릇’이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객관적이고 삶의 체취가 묻어 있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기>의 ㉔도 단지 천자문에 올라있는 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은 ㉓이다. 또한 (다)의 ㉔도 ‘목청’(감정)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문맥상 ㉔과 가깝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㉑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단순한 배경이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다. ㉒은 문맥적 의미상 ㉔와 대조된다. ㉔은 ‘목청’이 제거된 ‘이야기’와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이므로 단순한 글자로서의 ‘천(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 33.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를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 혹은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등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가 지향하는 상황이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환상 세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나)에는 환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새’가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이면에는 이와 대비되는 ‘포수’(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포수’가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는 표현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② 어머니가 ‘그릇’을 ‘그룩’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발상을 얻고 있다. ③ (나)는 연 구분을 하지 않은 20행 짜리 단연시인데 반해 (가)는 숫자를 이용하여 뚜렷이 연 구분을 하고 있다. ④ (가)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나)는 어머니와 대비되는 ‘나’가 뚜렷이 드러난다.

## 34.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의 ‘심장의 박동’은 ‘감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는 말에 감성을 불어넣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릇’이 사전에 등재된 ‘죽은 단어’라면, ‘그룩’은 ‘어머니’의 삶에서 창조된 ‘살아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그룩’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그릇’은 ‘나’가 국어사전에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룩’은 ‘어머니’가 삶을 통해 ‘만드신’ 말이다. 즉 ‘그룩’이 더 창조적이다. ③ [C]를 시(이야기)와 음악(노래)가 분리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⑤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는 감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처의 원인이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E]는 ‘뇌수’와 ‘심장’, ‘이야기’와 ‘노래’, ‘감성’과 ‘이성’이 긴밀히 결합된 시를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35-37] 사회,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재화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여러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일반 재화의 경우,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원의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재화가 아닌, 공익 서비스의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게 되면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공익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이 필요하지만, 두 방법 모두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가격 결정과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동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이 지닌 문제점 또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일반 재화와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의 차이

## 3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는 공익 서비스와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평균 비용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해당 사업자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⑤의 답지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고 되어 있다. ② 1문단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다. ③ 2문단 처음 부분을 보면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와 있다.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두 재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 공익 서비스 기업의 손해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다.

## 36.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은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 ㉡는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이다. 한계 비용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의 만족도가 커지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지문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은 수돗물과 같은 공익 서비스의 경우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가 손실을 본다고 되어 있다. ② [A]를 보면 톤당 한계 비용이 1달러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적절하다. ③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진다고 되어 있다. ④ [A]를 보면 평균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므로 한계 비용과의 격차가 줄어들음을 추리할 수 있다.

## 37. 어휘 어법(문맥에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추정하다’는 ‘추측하여 판정함’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문맥을 살펴보면 ‘공익 서비스의 경우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따져서 생각하면’의 의미이므로 효율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의미를 지닌 ‘고려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투입’은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음.’의 의미이다. ② ‘초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함.’의 의미이다. ④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의 의미이다. ⑤ ‘감소’는 ‘양이나 수치가 줄.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의 의미이다.

## [38-42] 갈래 복합

## (가) 이용휴, ‘수려기’

**작품해설** : ‘따르며 살리라’라는 의미인 ‘수려’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를 설명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먼저 사람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 평생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하며, 무엇인가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만 ‘따름’의 기준이 시대나 국가, 각자의 천성과 사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유추의 사용이나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다.

**[주제]**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

## (나)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작품해설** :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장편 가사로, ‘화전가’의 일반적 구성처럼 놀이를 가는 흥겨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화전가와 달리 청춘과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자 화자가 텐동어미로 바뀌면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청춘과부에게 들려주어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지문은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괴롭고 어려운 삶의 애환을 달관과 긍정으로 극복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텐동어미의 기구한 인생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다)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작가가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연시조로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자 자신이 전6곡(前六曲)을 언지(言志), 후6곡(後六曲)을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언지(言志)는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언학(言學)은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인간이 끊임 없는 수양을 통해 자연의 영원성을 닮아갈 수 있다는 발상은 작가의 도학자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자연에서 사는 삶의 기쁨과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

**38.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에서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에서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은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나타난다. ③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는 화자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다) 어디에서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가)~(다)는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는 찾을 수 없다.

**39. 비판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4]에서 두 번에 걸쳐 글쓴이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다. [4]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법칙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른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⑤ 이 글에서는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 관습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따름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40. 추론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텐동어미는 수심에 차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텐동어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텐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를 볼 때 텐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청춘과부는 텐동어미의 충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 4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청산’을 예찬했고, 중장에서는 이와 대구를 이루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유수’의 영원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② [A]는 인물의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④ [B]에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나타나지만 반복은 아니며, 화자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와 [B]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42.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㉞은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기서의 ‘바람’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④ ‘사람 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텐동어미는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람 눈’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⑤ (다)의 화자는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달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 [43-46] 고전 소설

서유영, '육미당기'

**작품해설** :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작자가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에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널리 읽혔던 인기 소설이다. 치밀한 구성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소설은 신라 태자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김소선이 중국에서 용맹을 떨친 후 일본 원정을 하여 항복을 받아 낸다는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구약(救藥) 모티프와 형제간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고, 후반부에서는 남녀 결연과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문의 내용은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백 소부(백문현)가 곤경에 처하는 부분이다.

[주제] 신라 태자 김 소선의 영웅적 일생

## 43. 비판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나 소저의 아버지인 백 소부가 이를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배연령이 간계를 부려 백 소부는 애주 참군으로 강등되어 압송당하게 된다. 즉 백 소저 개인의 혼사 문제가 백씨 가문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딸(백 소저)의 결혼에 백 소부가 관여하고, 아들(배득량)의 간청에 배연령이 억지로 혼인을 이루려 애쓰는 것으로 볼 때 배우자의 선택에 부모가 개입하고 있다. ③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권세가 강하고 약함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④ 대신들 간에 다툼은 나타나지 않으며, 백 소부에 대한 처리로 볼 때 천자의 권위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간신 배연령이 황보박을 부추켜 백 소부를 무고하는 상황은 나타나나,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랑캐와 결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백 소부를 무고한 말일 뿐이다.

## 44.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은 김소선의 시에 대한 화답으로 백 소저가 지은 것으로, 두 남녀 사이의 혼약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백 소부가 김소선에게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혼약이 이루어졌음을 당부하는 것이지, 김소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정답 ④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서로의 마음을 담은 시를 주고받아 혼약을 맺은 것이므로,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는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두 번째 수의 내용을 통해 백 소저가 강직하고 지조 있는 성품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복선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연령의 참소로 백 소부가 고난을 겪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 4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석 시량은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옥’과 ‘상서로운 난새’는 백 소저를 빗댄 것이고, ‘까막까치’는 눈먼 김소선을 빗댄 것으로,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석 시량은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라고 하며 백 소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② 석 시량은 ‘눈 먼 폐인’이나 ‘까막까치’ 등의 표현을 통해 김소선을 깎아 내리고 있다. ④ 석 시량은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이라고 말하며 배연령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라고 말하며 그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6.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배연령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사주하여 백 소부(백문현)가 오랑캐와 결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무고하자 천자는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장차 죽이려 했으므로, 백 소부가 ‘백척간두(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좌고우면’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황보박은 배연령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 ③ ‘막역지우’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 의하면 백 소부와 배연령은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된 것이다. ④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청혼을 거절당한 배연령이 분노하여 백 소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배득량이 아버지인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백 소저이다.



## [47-50] 기술, ‘디지털 피아노 작동 원리와 소리의 저장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와 건반의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피아노는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된 컴퓨터가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악기이다.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로 감지한다. 이 중에서 한 개는 건반의 눌림을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내장 컴퓨터의 CPU는 이를 통해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CPU는 이를 통해 음의 크기를 조절한다. 한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된다. 샘플링이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자화란 샘플링을 통해 얻은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건반의 소리는 이런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것이다.

**[주제]**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와 건반의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

## 47.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그런데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한다. 즉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감지는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한 표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술은 결국 양자화 구간을 이진수로 표현된 부호로 일대일 대응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이진수 부호는 같을 수 없다.

## 48. 추론적 사고(도식화를 통한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그러면 내장 컴퓨터의 CPU는 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오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

##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한다. 따라서 ㉞가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이라고 한 ㉠은 적절하지 않다.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과정이 아니라, 건반의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할 때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리 파동의 모양을 수치화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각 건반에 있는 3개의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이때 건반을 누르는 세기는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하여 감지한다. ③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CPU는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④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을 누르는 세기가 감지되면 CPU는 음의 크기가 적절하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하여 DAC로 보낸다. ⑤ DAC는 CPU가 보낸 소리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 49. 추론적 사고(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을 샘플링이라 한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가 짧아질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진다. 즉 데이터의 개수는 소리 파동의 모양과는 관련이 없고 샘플링 주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의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의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0. 어휘 · 어법(어휘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고, ㉢는 ㉣라는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날개’는 ‘비행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고, ‘복숭아’는 ‘과일’이라는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와 B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A가 적절하지 않다. ④ B가 적절하지 않다. ⑤ A가 적절하지 않다.